

컴투스 (078340)

기업이슈 브리프 | 인터넷/게임

Buy (maintain)

목표주가	95,000 원
현재주가	63,100 원
시가총액	8,119억원
KOSDAQ (11/15)	962.50 pt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202.35 억원
외국인 지분율	8.8%
절대수익률 (YTD)	-60.1%
상대수익률 (YTD)	-32.2%
배당수익률 (22E)	1.9%

재무데이터

(억원)	2020	2021	2022E	2023E
매출액	5,090	5,587	7,329	9,711
영업이익	1,141	526	115	657
순이익	764	1,215	422	575
ROE (%)	8.0	10.2	2.9	3.9
PER (x)	26.8	16.7	19.2	14.1
PBR (x)	2.1	1.4	0.6	0.5

자료: 컴투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K-IFRS 연결 기준

Stock Price



FTX 파산 신청 관련 영향 점검

Analyst **성종화** - 02 3779 8807 - jhsung@ebestsec.co.kr

XPLA와 CTX의 관계에 대한 이해

1.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토큰은 원래 TERA 메인넷 기반의 CTX였고 발행사는 컴투스홀딩스 해외법인의 자회사인 메타마그넷
2. 메타마그넷은 20억개의 CTX를 발행했으며 이중 거의 대부분은 락업 물량이고 유통물량은 8,000만개 정도
3. LUNA 폭락 사태로 TERA 메인넷을 버리고 자체 메인넷 XPLA를 직접 운영. 기발행된 CTX 토큰 20억개는 모두 XPLA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토큰 명칭도 XPLA 토큰으로 바꿈
4. XPLA는 동사 블록체인 메인넷명임과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동사 XPLA 메인넷 생태계의 최상위 토큰 이름이기도 함
5. CTX도 XPLA 메인넷 산하 하위 토큰(거버넌스 토큰)으로 CTXT라는 명칭으로 존속. P2E 게임의 경우 C2X 플랫폼 내 CTXT 토큰을 활용. CTXT 토큰은 XPLA 메인넷의 하위 토큰으로서 C2X 플랫폼 내에서 XPLA 토큰으로 환전할 수 있지만(XPLA 토큰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 거래소 상장은 되어 있지 않음. cf) 참고로 CTXT와 달리 거버넌스 토큰들 중엔 거래소 상장 토큰들도 많음. 동사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 등에 활용하는 XPLA 토큰의 거버넌스 토큰으로는 CTXT를 발행/운영하고 있고 P2E 게임의 게임 내 재화와 CTXT 토큰의 환전, CTXT 토큰 저장(지갑), CTXT와 XPLA의 환전 등을 담당하는 플랫폼 명칭은 C2X

글로벌 토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경위

1. FTX가 투자자 예치금을 산하 투자회사의 투자금으로 활용했는데 투자회사가 손실이 나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 파산 신청의 원인이라 알려져 있음
2. FTX는 파산 신청 후 로그인 등 시스템 올스톱 상태이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도 없고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위 표지 내용은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이 아니라 여러 포인트들의 일부임. 나머지 포인트들은 뒷 페이지에 이어짐

XPLA 물량 현황 및 FTX 상장 현황

1. CTX가 XPLA로 그대로 전환되었으므로 XPLA도 현재 총 발행물량 20억개, 유통물량 8,000만개
2. 유통물량 중 투자자의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물량도 상당부분이며 FTX, gate.io 등 거래소 상장물량도 상당. 이 중 "FTX 상장물량은 3,200만개 정도"로서 총발행물량 20억개의 1.6%, 유통물량 8,000만개의 40%
3. 현재 개당 가격 0.5불 감안 시 FTX 파산 신청으로 묶인 물량의 시가는 200억원 정도

FTX의 파산 신청에 따른 컴투스, 컴투스홀딩스 직간접 영향 점검

1. FTX 상장물량 3,200만개는 모두 투자자들 물량이고 양사 보유 물량은 없음. 따라서, FTX의 파산 신청에 따른 양사의 직접적 재무영향은 없음
2. 그러나, XPLA 발행 및 운영 주체로서 이를 활용해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양사의 간접적 영향(신뢰도 하락, 평판 하락, XPLA 코인 가격의 심리적 영향 가능성, XPLA 코인을 통한 블록체인 사업의 추진력 약화 등)은 다소 있을 수 있음. 이 부분이 이들 전(11/14 월) 양사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을 것이라 판단

회사측 대응 전략 점검

1. 평판 및 신뢰도 하락, 나아가 XPLA 토큰 가치와 XPLA 메인넷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려면 사측의 앞으로의 대처 방안 중요
2. 일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발행사 메타마그넷이 보유한 리저브 물량(미지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는 예비 물량. 발행물량 20억개의 1%인 2,000만개. 대략 140억원 정도)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 중

→ 리저브 물량이 FTX 상장물량 3,200만개에 못 미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투자자 지원/보호 부분을 잘 대처한다면 금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동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

3. FTX 상장 3,200만주는 소각함으로써 XPLA 가치 방어를 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 함

→ 가치란 것이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향후 다소의 가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나 그래도 유통물량의 40%에 달하는 물량이 소각되면 수급적 측면에선 가치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판단

이들 전(11/14 월) 주가 급락의 적정성 진단. 향후 주가 영향 및 방향성에 대한 소고

1. 금번 사태로 인한 양사의 직접적 재무 영향은 없으나 간접적 영향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주식시장의 생리로서 부득이한 측면 상존

2. 다만, 직접적 재무 영향은 없다는 점과 회사측 대응 방안에 따른 신뢰 회복 및 XPLA 가치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 영향의 "정도"는 과했다고 판단

3.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미디어/엔터, 메타버스 등)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서비스의 혈액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코인 사업 자체도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매우 풍부. 다만, 단기적으로 변수도 많고 변동성과 불확실성도 커 개별업체들의 사업이 발전하고 진화하며 전체적인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는 여러 난관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숙명. 동사는 자체 잘못은 아니나 본의 아니게 LUNA발 TERA 사태로 인한 메인넷 교체에 이어 FTX 파산 신청 사태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황. 작은 회사가 여러 변수가 많은 대규모 신사업을 산업초기 단계부터 공격적으로 수행할 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음. 투자자는 그때마다 실질적인 영향 여부와 사측의 대응에 따른 문제 해결 방향 등을 잘 점검하며 대응해야 함

컴투스 목표주가 추이

(원)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락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락율(%)		
			최저 대비	최고 대비	평균 대비				최저 대비	최고 대비	평균 대비
2021.01.19	Buy	220,000원	-19.3		-28.2	2022.11.14	Buy	95,000원			
2021.05.13	Buy	205,000원	-31.5		-35.9						
2021.06.29	Buy	166,000원	-23.7		-28.7						
2021.08.13	Buy	140,000원	20.9		-21.8						
2021.11.11	Buy	228,000원	-22.5		-32.0						
2022.01.10	Buy	198,000원	-29.5		-33.9						
2022.02.14	Buy	175,000원	-35.0		-37.0						
2022.03.02	Buy	150,000원	-19.0		-25.2						
2022.04.25	Buy	135,000원	-27.0		-32.7						
2022.05.17	Buy	100,000원	-11.7		-21.0						
2022.07.13	Buy	90,000원	-2.8		-13.3						
2022.08.12	Buy	107,000원	-16.1		-21.9						
2022.08.23	Buy	100,000원	-6.4		-16.3						
2022.09.19	Buy	130,000원	-34.2		-40.3						
2022.10.17	Buy	100,000원	-23.7		-28.1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성종화).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0.2% 9.8%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pm 20\%$ 에서 $\pm 15\%$ 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1. 10. 1 ~ 2022.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